

실학자 반계 유형원 개혁 사상 만나다

부안군, '반계수록' 전제편 번역본 출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반계 유형원의 저서 '반계수록' 전제편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출간을 통해 일반 독자들도 유형원의 사상과 개혁 방안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출간은 익산재연구회에서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형원의 실학 정신을 되살리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 변화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반계수록 번역본 출간 사업을 지원해 왔다.

반계수록은 반계 유형원이 병자호란(1636년) 이후 부안 우반동에 살면서 20여년 간에 걸쳐 저술한 책으로 조선 후기 사회와 경제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 했으며, 단순 정약용을 비롯한 후대 증봉주의 실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저서로 평가 받는다.

유형원의 자호인 반계(磻溪)는 우동리의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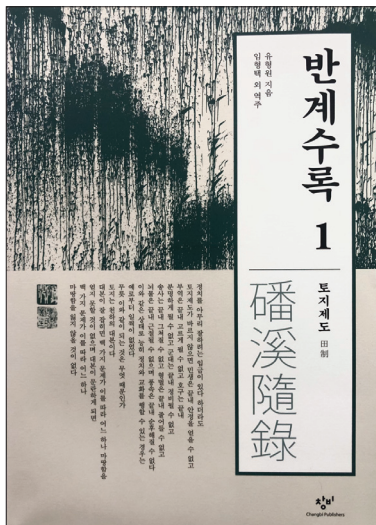
지명인 우반동(愚菴洞)에서 따왔다. 이번 출간은 전체 26권 중 전제(田制)를 다룬 1~8권의 번역 내용을 묶어 간행됐다.

전제편은 전근대 농경사회에서 생활의 근간이 됐던 토지제도의 개혁을 다루고 있어 반계수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출간된 번역본은 원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린 정확한 해석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추가하는 등 유형원의 개혁 사상과 논지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술에 주안점을 뒀다.

군과 익산재연구회는 전제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교육편, 입관편, 직관편, 봉록편, 병제편에 대해 번역본 출간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간을 통해 유형원의 개혁 사상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를 되새기며 그가 남긴 역사적 유산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반계 유형원의 사상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계 유형원 저서 '반계수록' 전제편 번역본

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대-군산대, 합동 공연 펼친다

전국 대학 최초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합동 연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합동으로 연주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김지환 교수의 지휘 아래 각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80여 명과 합창단 200여 명이 한 무대에 오른다.

음악회는 14일 오후 7시 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첫 선을 보이며, 두 번째 무대는 19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이번 합동공연은 두 대학이 음악을 통해서도 협력하고 감동을 공유하며 대학 간 교류를 증진하고자 기획됐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인간의 희망과 평화, 화합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 독일 시인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바탕으로 한 합창이 울려 퍼지며 인류애와 조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영화제 스크리닝·영사 매니저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전주국제영화제, 22일까지 접수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오는 22일까지 '2024 영화제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 양성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스크리닝 매니저'와

'영사 매니저'는 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영화제 개막 전 상영작과 상영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영사 사고를 예방하고, 관객들에게 최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지원 동기 등을 심사해 최대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은 12월 3~18일까

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주영화제작소 3층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수료자에게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 선발 시 서류 전형 우선 선발과 면접 전형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단,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된다.

교육 접수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술팀(technical@jeonjifest.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누리 투어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양질 관광 서비스 기회 증진 도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여행 프로그램인 '2024 전북문화누리 투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어서비스'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이용촉진 기획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양질의 관광 서비스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11월 13일부터 12월까지 '투어서비스'를 주력관리공단과 연계해 김제검산, 정읍수성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주력관리공단은 사업을 위한 수혜자 모집과 식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재단은 버스 비용, 코스 설계 등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예산대비 이용률은 전국 2위(75.9%)로 올해 연말까지 이용촉진 기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김제검산1 수혜자에게 고창 선운사, 심원 1회 차 투어를 시작으로, 29일 정읍수성 수혜자의 순창 강천사, 실랜드 2회 차 투어, 12월 중 복지시설, 마을단위 수혜자 등과 연계한 3회 차 투어를 진행한다.

재단 관계자는 "도민이 문화누리카드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문화누리카드)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4개 시·군 및 재단이 주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교육문화팀(063-230-745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중원대 산학협력단,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3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통한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지 산업 및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공동 세미나·심포지엄 등 개최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학술자료 및 연구 결과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장 1인 외 전주한지장 3인을 보유한 전주시는 전주한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전주산 다펀을 활용한 전통한지 원료 확보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전주 전통한지의 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중원대학교가 위치한 과산군은 국가무형유산 한지장 1인을 필두로 전통한지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김도영 원장은 "전당은 전통한지를 보존하고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K-한지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뿐만 아니라 지역별 한지산업의 특성을 연구하는 등 전통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단막창극 다섯바탕전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기획공연 '단막창극 다섯바탕전'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의 대표적인 대목들을 엮어, 국악원의 깊이 있는 연기와 다채로운 소리의 빛깔을 한 무대에 담아내는 특별한 자리다.

다섯바탕전은 맹인 잔치 때나는 심봉사와 백덕이네의 우여곡절이 담긴 〈황성 올라기는 대목〉으로 시작, 춘향과 이몽룡의 광한루 첫 만남을 그린 〈단오 대목〉, 놀보의 심술보가 가득한 〈화초장 대목〉, 전쟁 속에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군사설움 대목〉, 마지막으로 용왕과 토끼의 긴장감 넘치는 설전이 이루어지는 〈토끼 배 가르리는 대목〉까지 전통 판소리의 대표적인 눈대목이 무대를 채운다.

공연 관람 예약은 전화(063-620-2329),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